

# 주간 통일정세

2018-10

## Contents

### I. 한반도 평화 및 협력

1. 평화관련 주요 동향
2. 남북 교류협력

### II. 북한정세

1. 정치
2. 경제
3. 사회문화
4. 외교국방

### III. 동북아정세

1. 한반도 정세
2. 주변국 정세

### IV. 북한인권

1. 북한인권 국제동향
2. 북한인권 내부동향
3. 북한인권 남한동향
4. 탈북자 및 이산가족·남북자·국군포로
5. 대북지원

주간통일정세는 북한 및 국내외 언론보도를 참조하여 작성된 것임.

# I 한반도 평화 및 협력

## ■ 개요

분류	일자	
평화 관련 주요 동향	3.7	종교계 “남북정상회담 합의 환영...남북관계 도약 계기”(연합뉴스)
		유엔 “남북 군사긴장 완화하는 어떤 조치도 환영”(연합뉴스)
		유엔 총장, 남북합의에 “평화적 길 찾을 기회 잡아라”(연합뉴스)
남북 교류협력	3.7	北패럴림픽 선수단·대표단 24명 오늘 오전 방남(연합뉴스)
	3.8	대북지원단체들, 정상회담서 민간교류 지속의지 천명 촉구(연합뉴스)
		평창선수촌 광장에 내걸린 인공기...북한 선수들 '경건·과묵'(연합뉴스)

## ■ 주간 동향

### 1. 평화관련 주요 동향

#### 가. 남북한

2018. 3. 7.

##### ■ 종교계 “남북정상회담 합의 환영…남북관계 도약 계기”(연합뉴스)

- 남북이 4월말 정상회담을 개최하기로 합의한 것에 대해 종교계가 “예상을 뛰어넘는 놀라운 성과”라며 환영을 표했는데, 대한불교조계종 민족공동체추진본부(이하 민주본)는 7일 논평에서 대북특사단의 방북 결과 발표에 대해 “남북관계를 개선하고 도약시킬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고 남과 북이 주도해 미국을 비롯한 주변국과 한반도 평화체제를 논의할 수 있는 단초를 마련했다”고 평가함.
- 민주본은 “방북 결과가 안정적으로 논의되고 실현되도록 우발적으로 일어날 수 있는 남북 간 군사적 긴장을 해소하기 위한 대화와 실천조치가 필요하다”며 “민간차원의 다양한 교류와 협력사업이 재개될 수 있도록 당국 차원의 보장과 지원이 시행되어야 한다”고 강조함.
- 보수 성향의 개신교 연합기구인 한국기독교총연합회 역시 “대화가 가능한 단계로 나아간다는 것은 남북관계 발전에 중요한 변화”라며 환영을 표했으며, 한기총은 “그간의 노력이 남북정상회담을 통해 구체적인 합의로 이어지고 북한의 비핵화 의지가 핵무기와 탄도미사일 포기 등 실질적인 이행으로 이어지기를 기대한다”며 “남북 대화와 함께 북미 간 대화도 잘 이뤄져 북한이 국제사회의 일원으로서 책임 있는 자세를 보이는 기회가 되기를 바란다”고 밝혔고,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NCCK) 역시 이날 세계교회 지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88선언 30주년 국제협의회’에서 정상회담 개최 합의를 환영한다는 내용의 성명을 발표함.

#### 나. 국제사회

2018. 3. 7.

##### ■ 유엔 “남북 군사긴장 완화하는 어떤 조치도 환영”(연합뉴스)

- 유엔은 6일(현지시간) 북한의 ‘비핵화 대화’ 의지표명 및 남북정상회담 개최 합의에 대해 “분명히 고무적인 것”이라고 평가함.

- 스테판 두자릭 유엔 대변인은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한반도의) 군사적 긴장을 완화할 수 있는 어떤 조치도 환영한다”면서 이같이 밝힘.
- 두자릭 대변인은 “어떤 방식이든 이러한 진전을 뒷받침하겠다는 게 유엔의 거듭된 입장”이라고 덧붙임.

#### ■ 유엔 총장, 남북합의에 “평화적 길 찾을 기회 잡아라”(연합뉴스)

- 안토니우 구테흐스 유엔 사무총장은 6일(현지시간) 성명을 내고 남북정상회담 합의와 관련, “평화로운 길을 찾기 위해 이용 가능한 기회를 붙잡고 그 모멘텀을 지킬 필요가 있다”고 당부함.
- 구테흐스 총장은 성명에서 “최근 성과는 진지한 대화 재개의 토대를 마련하고 한반도의 지속가능한 평화와 비핵화로 이어질 진일보”라고 이번 남북합의를 높게 평가함.
- 그는 “최근 남북 대화에서 이뤄진 진전에 고무됐다”면서 “특히 곧 정상회담을 하고 군사적 긴장을 더 줄이며 모든 당사자와 앞으로 비핵화를 논의하겠다는 합의가 고무적”이라고 덧붙임.

## 2. 남북 교류협력

2018. 3. 7.

#### ■ 북패럴림픽 선수단 대표단 24명 오늘 오전 방남(연합뉴스)

- 평창동계패럴림픽(9~18일)에 참가하는 북한 선수단과 대표단 24명이 7일 오전 경의선 육로를 통해 방남함.
- 노르딕스키에 와일드카드(특별출전권)로 참가하는 마유철과 김정현을 비롯한 선수단 20명과 장애인올림픽위원회 대표단 4명 등임.
- 선수단은 정현 조선장애자보호연맹 중앙위원회 부위원장이, 대표단은 김문철 조선장애자보호연맹 중앙위원회 위원장이 각각 단장을 맡았음.

2018. 3. 8.

#### ■ 대북지원단체들, 정상회담서 민간교류 지속의지 천명 촉구(연합뉴스)

- 대북지원 단체들은 내달 말 개최되는 제3차 남북정상회담에서 지속적인 남북 민간교류를 보장하겠다는 의지를 천명해줄 것을 8일 촉구함.
- 국내 57개 대북지원 민간단체들의 협의체인 대북협력민간단체협의회(북민협)

는 이날 성명서를 통해 “남북정상회담에서 인도주의 활동과 민간 교류의 지속성과 안정성을 보장하기 위한 원칙과 의지를 천명하길 바란다”며 “이번 정상회담 준비와 전개과정에서 당국과 북민협의 적극적인 협력이 이루어지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 북민협은 “인류애에 기반한 활동과 민간교류는 한반도의 평화와 통일을 준비하는 데 중요한 기반이 되기에 남북 간 정치적 상황과 관계없이 독립적이고 지속적으로 추진돼야 한다”고 강조했다며, 앞서 경실련통일협회도 전날 논평을 통해 “남북정상회담 개최로 그동안 중단되었던 남북 교류·협력을 재개해야 한다”고 주장함.

#### ■ 평창선수촌 광장에 내걸린 인공기…북한 선수들 ‘경건·과묵’(연합뉴스)

- 8일 오전 강원도 평창군 대관령면에 있는 평창선수촌 국기 광장에서 2018 평창 동계패럴림픽(장애인올림픽)에 참가한 북한, 중국, 우즈베키스탄 선수단 입촌식이 열림.
- 이번 대회 장애인 노르딕스키에 출전하는 마유철(27), 김정현(18) 등 2명의 선수를 포함한 북한 대표팀 20명은 미리 나와 사진을 촬영하며 떠들썩하게 답소를 나눈 중국, 우즈베키스탄 선수단과 달리 오전 10시에 맞춰서 행사장에 나타남.
- 북한 선수단장인 정현 조선장애자보호연맹 중앙위원회 부위원장과 김정현이 선수단을 대표해 선물 교환식에 나섰고, 고려청자 형태의 항아리를 박은수 선수촌장에게 전달했으며 북한 선수단 대표로 나선 정현은 평화와 화합의 축제를 염원하는 패럴림픽 대회벽에 ‘민족의 위상’이라는 글을 남김.

## II 북한정세

### ■ 개요

분류	일자	
정치	3.6	특사단 만찬에 동석한 北리설주·정상국가 과시 의도(연합뉴스)
	3.8	北외무성, 대미라인 핵심 최선희 '부상 승진' 확인(연합뉴스)
		北, 연일 사상무장 강조·"반동들 제재봉쇄 어느때보다 열올려"(연합뉴스)
		北, 여성의날에 "여성 존중" 선전하며 체제결속 독려(연합뉴스) 北김정은, 시리아 집권당 기념일 맞아 아사드에 축전(연합뉴스)
군사	-	-
경제	3.4	"북한, 이집트 거점으로 중동·북아프리카에 무기장사"(연합뉴스)
	3.6	"북, 1월 대중국 수출액 작년 동기대비 5분의 1"(연합뉴스)
사회 문화	3.8	北, 세계 여성의날 108주년 기념보고회 개최(연합뉴스)
외교 국방	3.3	北, 제네바군축회의서 "美 도발시 우리식으로 다스릴것"
		北외무성 "대화로 문제해결 의지 있지만 결코 대화 구걸안해"(연합뉴스)
	3.4	트럼프 "김정은과의 직접 대화도 배제하지 않을 것"(연합뉴스)
	3.5	미, 대북특사 파견에 "완전하고 검증가능한 비핵화는 타협안돼"(연합뉴스)
		北신문, 특사단 방북 당일 美향해 "자주권 침해시 강력대응"(연합뉴스)
		미 "북, 자국민에 화학무기 사용"···김정남 VX 암살 제재 단행(연합뉴스)
		일본 아오모리현에 북핵실험 감시시설 설치···크세논 수치 측정(연합뉴스)
		"주북 러시아 대사, 최근 승진 최선희 북 외무성 부상 만나"(연합뉴스)
		"세계교회 지도자들, 北조그런 초청으로 5월초 방북"(연합뉴스)
	3.6	백악관 "트럼프, 북한 인사와 직접 통화한 건 아니다"(연합뉴스)
		北신문 "우리 핵무력, 美범죄역사 끝장낼 정의의 보검" 주장(연합뉴스)
		김정은 "북미대화 의제로 비핵화 논의할 수 있다"(연합뉴스)
		日외무상, 韓대표단-김정은 면담 겨냥 "北, 미소외교에 필사적"(연합뉴스)
		日방위상 "北핵정책 변화 확인 안되면 압력약화 안돼"(연합뉴스)
	러시아 "미국과 비핵화 대화하겠다는 북한 의지 지지"(연합뉴스)	
3.7	트럼프 "남북서 나온 발표 매우 긍정적···북한 아주 좋았다"(연합뉴스)	
	北신문 "美위협 대처해 취한 핵억제력 강화조치 정당" 주장(연합뉴스)	
	미 국무부 "김정남 암살은 북한 정권의 무모한 성격 보여줘"(연합뉴스)	
	조선신보 "美, 北과 대화하려면 그릇된 정책 버려야"(연합뉴스)	

	北통신 "미국, 군사적 도발소동 대가 치를 것" 비난(연합뉴스)
	디아베 "당분간 대북압력 높이며 각국과 연대해 상황불 것"(연합뉴스)
3.8	인도, 새 대북 무역규제 조치 발표(연합뉴스)
	틸러슨 "대화에 관한 대화가 첫 단계...협상까지는 먼 길"(연합뉴스)
3.9	"북미정상 '첫 역사적 만남' 의사"...주요 외신들 긴급보도(연합뉴스)
	깜짝 초대한 김정은, 바로 수락한 트럼프...파격 거듭한 북미정상(연합뉴스)

<김정은 공개활동 동향>

보도일	보도내용	수행자	비고
-	-	-	-

## ■ 주간 동향

### 1. 정치

#### 가. 김정은 동향

2018. 3. 8.

##### ■ 北김정은, 시리아 집권당 기념일 맞아 아사드에 축전(연합뉴스)

- 김정은 위원장이 대표적 우호국인 시리아의 집권당 기념일에 바샤르 알 아사드 시리아 대통령에게 축전을 보낸 사실을 조선중앙통신이 8일 보도함.
- 중앙통신은 이날 김 위원장이 아사드 대통령에게 “시리아에서의 3월8일 혁명 55돌에 즈음하여 당신에게 따뜻한 축하를 보낸다”는 내용의 축전을 보낸 사실을 전함.
- 김 위원장은 축전에서 “3월8일 혁명 이후 시리아 군대와 인민은 아랍사회부흥당(바트당)의 영도 밑에 자주적이며 번영하는 새 사회 건설을 위한 투쟁에서 커다란 전진을 이룩하였다”고 평가하고, “시리아 군대와 인민의 정의의 위업에 굳은 지지와 연대성을 보내면서 당신이 건강하여 책임적인 사업에서 보다 큰 성과를 거둘 것을 축원한다”고 밝힘.

#### 나. 주요 엘리트 및 간부 동향

2018. 3. 6.

##### ■ 특사단 만찬에 동석한 北리설주…정상국가 과시 의도(연합뉴스)

- 김정은 북한 노동당 위원장의 부인 리설주가 5일 저녁 이뤄진 김 위원장과 대북 특별사절단과의 만찬에 참석함.
- 6일 조선중앙통신이 배포한 만찬 사진을 보면 리설주는 옅은 분홍색 정장 차림으로 김 위원장 오른편에서 참석자들과 다 같이 웃고 있음.
- 특사단과의 만찬 같은 외교 관련 행사에 김 위원장과 리설주가 동반 참석한 것은 이례적인 일로, 리설주의 만찬 참석은 북한이 정상국가임을 강조하기 위한 선전의 하나로 보임.

2018. 3. 8.

##### ■ 北외무성, 대미라인 핵심 최선희 ‘부상 승진’ 확인(연합뉴스)



- 북한 외무성이 최설희 전 북아메리카국 국장의 부상 승진을 확인함.
- 북한 외무성 홈페이지에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외무성 부상 최설희 동지는 5일 인민문화궁전에서 의례 방문하여온 안톤 홀로프코프 소장을 단장으로 하는 러시아 에네르기(에너지) 및 안전센터 대표단과 만나 담화하였다”는 내용의 글이 지난 6일자로 올라와 있는 것으로 8일 나타남.
- 앞서 주목한 러시아 대사관은 지난 5일 페이스북 계정을 통해 알렉산드르 마체고라 주북 러시아 대사가 최설희 북한 외무성 부상과 면담을 했다고 밝힌 바 있지만, 북한이 그녀의 승진 사실을 공식 확인한 것은 처음임.

#### 다. 주요 기관 행위

##### ■ 특이사항 없음

#### 라. 주요 논조 및 성명

2018. 3. 8.

##### ■ 北, 연일 사상무장 강조…“반동들 제재봉쇄 어느때보다 열을 올려”(연합뉴스)

- 북한 노동당 기관지 노동신문은 3일 ‘신념의 길’이라는 제목의 글을 통해 “제국주의자들과 반동들은 우리 앞길을 가로막으려고 최후발악하고 있으며 우리나라에 대한 악랄한 제재와 봉쇄 책동에 어느 때보다 열을 올리고 있다”면서 “사회주의에 대한 신념을 억척같이 다져야 한다”고 촉구함.
- 신문은 “적들은 우리의 경제를 질식시키고 인민생활을 저락시켜 사회주의에 대한 우리 인민의 신념을 허물어버리려 하고 있으며 사회주의 보루인 우리 공화국을 압살함으로써 지구 상에서 사회주의를 완전히 말살하려고 발광하고 있다”고 최근의 국제정세를 설명함.
- 이어 “자신(김정은)께서는 영웅 칭호도 훈장도 필요 없다고, 자신께서는 이를 악물고 혀를 깨물면서라도 위대한 수령님들께서 한평생 노고를 바쳐 키우신 우리 인민을 위해 더 많은 일을 하려고 한다고 하시는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동지를 우러르며 천만 군민이 비상한 혁명열, 애국열로 심장을 세차게 끓이고 있다”고 덧붙임.

##### ■ 北, 여성의날에 “여성 존중” 선전하며 체제결속 독려(연합뉴스)

- 노동당 기관지 노동신문은 세계여성의 날인 8일 1면 사설에서 “세상에는 수십억

의 여성들이 있지만 조선(북한) 여성들처럼 대를 이어 위대한 태양의 축복 속에 값 높은 삶을 누리며 조국과 민족 앞에 지닌 사명과 본분을 훌륭히 수행해 나가는 여성들은 없다”고 주장함.

- 노동신문은 이날 ‘사회제도와 여성들의 운명’이라는 글에서 “자본주의 사회에서 돈이 없으면 무참히 짓밟히는 것이 여성들의 권리”라며 “우리나라 사회주의 제도야말로 여성들의 참다운 인권이 보장되는 여성중시, 여성 존중의 대(大)화원”이라고 주장함.
- 대남 선전매체 ‘우리민족끼리’도 북한 여성들이 “그 어떤 구속도 걱정도 없이 각급 인민주권기관의 대의원으로, 재능있는 과학자, 예술인, 체육인으로 자라나 사회발전에 참답게 이바지하고” 있다고 선전함.

## 2. 군사

### 가. 군사 및 핵미사일

- 특이사항 없음

### 나. 한국 및 미국

- 특이사항 없음

## 3. 경제

### 가. 정책 및 주요조치

- 특이사항 없음

### 나. 경제 실태

- 특이사항 없음

### 다. 대외 경제 관계

2018. 3. 4.

- “북한, 이집트 거점으로 중동·북아프리카에 무기장사”(연합뉴스)

- 미국 뉴욕타임스(NYT)는 4일(현지시간) 유엔이 이달 중 발표할 보고서에서 2016년 8월 이집트의 수에즈 운하 근처에서 단속된 북한 화물선 ‘지선호’에 관한 새로운 사실을 공개한다고 전함.
- 당시 지선호는 로켓 수류탄 3만발을 싣고 있었고 이는 약 2천600만 달러(약 281억원) 어치로 추정됐으며, 유엔 보고서에 따르면 로켓 수류탄의 고객은 이집트 내 주요 방위업체인 아랍산업화기구(AOI)로 드러났는데 이는 북한과 이집트가 은밀하게 무기를 거래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대표적인 사례임.
- NYT는 유엔과 미국 정부 관계자들을 인용해 이집트가 그동안 북한제 무기를 구매했고 북한 외교관들이 무기판매를 하도록 묵인해왔다고 지적함.

2018. 3. 6.

■ **“북, 1월 대중국 수출액 작년 동기대비 5분의 1”(연합뉴스)**

- 미국의 소리방송(VOA)이 한국무역협회의 ‘북-중 교역자료’를 인용해 보도한 내용에 따르면 올해 1월 북한의 대중 수출액은 3천641만 달러로, 작년 1월의 2억110만 달러나 2016년 1월의 1억7천752만 달러에 비해 최대 5분의 1 정도 감소한 것으로 나타남.
- 북한의 1월 대중국 수출액을 품목별로 보면 국제통일상품분류체계(HS) 코드 ‘07’인 채소는 475만4천371달러로 작년 1월 대비 2천84% 급증했고, HS 코드 08인 과실과 견과류도 431만3천828달러로 작년 동기 대비 1천67% 늘었다고 VOA는 전함.
- VOA는 유엔 안보리 제재로 “(북한산) 수산물 수출길이 막히자 잠시나마 또 다른 식량인 채소와 과실, 견과류가 이 자리를 대체하는 듯한 현상이 벌어지고 있는 것”이라고 추정함.

#### 4. 사회문화

##### 가. 공식 발언 및 주요조치

- 특이사항 없음

##### 나. 시장관련

- 특이사항 없음

## 다. 각종 단속 및 검열

### ■ 특이사항 없음

## 라. 사회 동향

2018. 3. 8.

### ■ 北, 세계 여성의날 108주년 기념보고회 개최(연합뉴스)

- 북한은 8일 세계 여성의 날을 맞아 평양 인민문화궁전에서 '3·8 국제부녀절' 108주년 기념 중앙보고회를 개최함.
- 북한 조선중앙방송 등에 따르면 이날 보고회에는 양형섭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부위원장, 최휘 노동당 중앙위원회 부위원장, 김수길 평양시당 위원장, 전광호 내각 부총리, 장춘실 조선사회주의여성동맹 중앙위원회 위원장 등이 참석함.
- 또 해외동포 여성들과 평양 주재 외교·국제기구 대표부 여성들 및 외국 손님들도 초대됐다고 북한 매체는 전함.
- 최휘 당 부위원장은 보고를 통해 “오늘 주체의 조선 여성운동은 경애하는 최고 영도자 김정은 동지를 높이 모시어 자기 발전의 최전성기를 펼쳐나가고 있다”며 “우리나라 여성운동은 연대와 세기를 이어 혁명적이고 전투적인 여성운동으로 자랑찬 승리의 한길만을 걸어왔으며 세계 진보적 여성운동의 본보기로 자랑 떨치고 있다”고 주장하며, “공화국 창건 70돌을 맞는 뜻깊은 올해에 사회주의 강국건설의 모든 전선에서 새로운 승리를 쟁취하기 위한 전 인민적인 총돌격전에서 조선여성의 영웅적 기상을 남김없이 펼쳐나가야 하겠다”면서 각 분야에서 의 역할을 독려함.

## 5. 외교국방

### 가. 북·미 관계

2018. 3. 3.

### ■ 北, 제네바군축회의서 “美 도발시 우리식으로 다스릴것”(연합뉴스)

- 북한이 지난달 27일 스위스 제네바에서 열린 군축회의에서 “미국이 기어코 우리를 건드리며 도발을 걸어온다면 우리는 우리식 대응방식으로 미국을 다스릴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다고 조선중앙통신이 3일 보도함.

- 조선중앙통신은 이날 “(북한대표가 전원회의 연설을 통해) 미국이 조선반도(한반도)와 그 주변에 방대한 전략자산들을 끌어들이면서 정세를 의도적으로 격화시키고 있으며 겨울철올림픽경기대회가 끝나는 즉시 우리에게 대한 핵 선제공격을 노린 합동군사연습을 벌여 놓으려고 획책하고 있는 데 대해 규탄했다”며 이같이 전함.
- 북한대표는 “이미 수차 천명한 바와 같이 우리는 어떤 봉쇄도 우리에게 대한 전쟁행위로 간주할 것이며 미국이 정말로 우리와 ‘거칠게’ 맞설 담력이 있다면 굳이 말리지 않을 것”이라고 위협하며, “침략적인 적대세력이 우리 국가의 자주권과 이익을 침해하지 않는 한 핵무기를 사용하지 않을 것이며 그 어떤 나라나 지역도 핵으로 위협하지 않을 것이지만 조선반도의 평화와 안전을 파괴하는 행위에 대해 단호하게 대응할 것”이라고 강조했다고 중앙통신은 보도함.

#### ■ 北외무성 “대화로 문제해결 의지 있지만 결코 대화 구걸안해”(연합뉴스)

- 북한 외무성은 3일 “우리는 대화와 협상을 통하여 외교적으로, 평화적으로 문제를 해결할 의지가 있지만 결코 대화를 구걸하거나 미국이 떠드는 군사적 선택을 피하지도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고 조선중앙통신이 보도함.
- 북한 외무성 대변인은 이날 북한의 북미대화 의사 표명 이후 미국의 동향과 관련한 조선중앙통신 기자의 질문에 “우리가 조미(북미)대화 의사를 밝힌 이후 나타난 미국의 동향은 우리로 하여금 미국이 조미대화가 재개되는 것을 달가워하지 않는다고밖에 달리 볼 수 없게 만들고 있다”면서 이같이 언급함.
- 대변인은 “우리는 평화를 바라는 우리 겨레와 국제사회의 염원으로부터 미국과도 대화가 가능하다는 입장을 밝혔다”면서 “대화과 협상을 통하여 외교적으로, 평화적으로 문제를 해결하려는 것은 우리의 일관하고도 원칙적인 입장이다. 우리가 지향하는 대화는 국가들 사이에 평등한 입장에서 호상 관심사로 되는 문제들을 논의 해결하는 대화”라고 지적하면서 “지난 수십 년간에 걸치는 조미회담 역사에서 우리는 단 한 번도 미국과 전제조건적인 대화탁에 마주앉은 적이 없으며 앞으로도 그런 일은 없을 것”이라고 주장함.

2018. 3. 4.

#### ■ 트럼프 “김정은과의 직접 대화도 배제하지 않을 것”(연합뉴스)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3일(현지시간) 워싱턴 주재 중견 언론인 모임인

- ‘그리디론 클럽(Gridiron Club)’ 연례 만찬에서 농담으로 가득 찬 연설을 하면서 “그들이 며칠 전 전화를 걸어왔다”고 언급함.
- 트럼프 대통령은 “그들은 ‘대화를 하고 싶다’고 말했다”며 “나도 ‘우리도 그렇다. 그러나 비핵화해야 한다’고 답변했다”고 털어놓고 “우리는 만나게 될 것이다. 뭔가 긍정적인 일이 일어나면 만나게 될 것”이라고 덧붙임.
  - 트럼프 대통령은 또 김정은 위원장을 언급하면서 “김정은과의 직접 대화도 배제하지 않을 것”이라고 발언함.

2018. 3. 5.

■ 미, 대북특사 파견에 “완전하고 검증가능한 비핵화는 타협안돼”(연합뉴스)

- 미국 국무부는 4일(현지시간) 우리 정부가 북한에 특사단을 파견하는데 대해 완전하고 검증가능한 비핵화는 타협의 대상이 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힘.
- 국무부 관계자는 특사 파견에 대한 미 정부의 공식 입장에 관한 연합뉴스의 질문에 “한반도 비핵화 달성을 위한 최대의 압박작전을 유지할 필요성을 포함한 통일된 대북 반응에 관해 한국 정부와 긴밀히 접촉하고 있다”면서 “미국과 한국은 남북(관계) 진척이 비핵화의 진전과 반드시 함께 이뤄지도록 최대의 압박작전을 통해 긴밀히 협력할 것”이라고 이메일을 통해 답함.
- 특히 그는 “우리는 한반도의 완전하고 검증 가능한 비핵화는 타협이 가능하지 않다는 우리의 입장을 강조하고자 북한에 기꺼이 관여할 것”이라며 “우리는 전임 정부들이 한 것과 같은 실수들을 저지르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함.

■ 北신문, 특사단 방북 당일 美향해 “자주권 침해시 강력대응”(연합뉴스)

- 노동당 기관지 노동신문은 5일 논평에서 미국이 지난달 23일(현지시간) 56개의 대상을 대북 독자제재 명단에 추가한 사실을 거론하며 “트럼프 패거리들의 이번 추가 제재 높음은 주권국가의 정당한 대외무역 활동을 전면 차단하기 위한 날강도적인 전횡으로서 우리 공화국의 자주권과 존엄을 유린하는 또 하나의 악랄한 도발 행위”라고 비난함.
- 신문은 “우리는 미국의 대조선(대북) 제재압박 책동을 우리 공화국의 자주권과 생존권, 발전권에 대한 참을수 없는 유린말살행위로 선전포고로 간주하고 있다”면서 “미국은 이제라도 우리의 전략적 지위를 바로 보아야 하며 저들의 이익에 부합되는 선택이 과연 무엇인가를 새겨보고 이성 있게 처신해야 한다”고 주장함.
- 그러면서 “만일 미국과 그 추종세력들이 그 무슨 해상봉쇄니, 자금줄 차단이니

하면서 우리의 자주권을 조금이라도 침해한다면 그에 따른 강력한 대응조치가 취해지게 될 것”이라면서 “미국은 뒤를 감당하지도 못할 부질없는 객기를 그만 부리고 대세의 흐름에 부합되는 현실적인 사고와 판단을 하는 것이 좋을 것”이라고 밝힘.

■ **미 “북, 자국민에 화학무기 사용”…‘김정남 VX 암살’ 제재 단행(연합뉴스)**

- 미 국무부는 5일(현지시간) 관보에 “미 정부는 북한이 국제법을 위반해 화학무기를 사용하거나 자국민에게 치명적인 화학무기를 사용해온 것으로 결론냈다”며 대북 제재를 발표함.
- 관보에서 국무부는 북한이 치명적인 화학무기를 ‘자국민’에게 사용했다고 완곡하게 표현했으나, 이는 지난해 2월 말레이시아 쿠알라룸푸르 국제공항에서 맹독성 신경작용제 ‘VX’로 암살된 김정은 노동당 위원장의 이복형 김정남을 일컫는 것이라고 워싱턴 외교 당국자는 설명함.
- 미국의 추가 제재는 북한에 대해 ▲대외 원조 ▲무기 판매 및 무기 판매 금융 ▲정부 차관 또는 기타 금융 지원 ▲국가안보 민감 재화 및 기술 수출 등 5대 사항을 중단 및 금지토록 하는 내용임.
- 다만 대외 원조의 경우, 긴급한 인도주의적 지원과 식량, 농산품 및 농산물에 대해서는 제재 대상에서 제외하도록 함.

2018. 3. 6.

■ **백악관 “트럼프, 북한 인사와 직접 통화한 건 아니다”(연합뉴스)**

- 미국 백악관은 5일(현지시간) “북한이 며칠 전 전화해 ‘대화하고 싶다’고 했다”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최근 발언이 북한 측과 직접 통화를 의미하는 게 아니라 문재인 대통령과 이뤄진 한미 정상 간 통화를 지칭했던 것이라고 밝힘.
- 백악관 국가안보회의(NSC) 관계자는 이날 ‘트럼프 대통령이 북한 측과 직접 통화했다는 뜻인가’라는 연합뉴스의 서면질의에 “트럼프 대통령은 북한 인사들과 통화하지 않았다”며 “대통령은 3월 1일 문재인 대통령과의 통화 내용을 언급했던 것”이라고 답변함.
- 이 관계자는 “당시 통화에서 문 대통령은 트럼프 대통령에게 북한과 관련된 진전상황을 설명했다”고 덧붙임.

■ **北신문 “우리 핵무력, 美범죄역사 끝장낼 정의의 보검” 주장(연합뉴스)**

- 노동신문은 6일 ‘미제의 반인륜적인 핵 범죄 역사를 끝장내야 한다’는 제목의 정세논설에서 “현실은 우리 국가가 미국의 가증되는 핵 위협에 대처하여 병진 노선의 기치를 높이 들고 핵 무력을 중추로 하는 자위적 국방력을 질량적으로 강화해온 것이 얼마나 정당당당하였는가를 웅변으로 실증해 주고 있다”며 “우리의 핵 무력은 피로 얼룩진 미국의 극악한 핵 범죄 역사를 끝장내고 불구대천의 핵 악마를 행성에서 영영 쓸어버리기 위한 정의의 보검”이라고 주장함.
- 신문은 1954년 비키니섬 수소폭탄 실험을 비롯해 미국이 과거 진행했던 핵실험들과 1968년 미 해군 정찰선 푸에블로호 사건, 1969년 미군 정찰기 EC-121기 사건 등을 거론함.
- 그러면서 “오늘도 조선반도(한반도)에 모처럼 마련된 긴장 완화와 평화 분위기를 의도적으로 파괴하기 위해 미국은 핵 항공모함 ‘칼빈슨’호, 핵 전략폭격기 ‘B-2’, ‘B-52’를 비롯한 핵 전략자산들을 남조선과 그 주변에 대대적으로 투입하면서 정세를 또다시 일촉즉발의 핵전쟁 국면으로 몰아가고 있다”고 비난함.

#### ■ 김정은 “북미대화 의제로 비핵화 논의할 수 있다”(연합뉴스)

- 청와대 고위관계자는 6일 “김정은 북한 노동당 위원장이 대북특사단을 만난 자리에서 북미대화에 적극적으로 임할 용의가 있다는 사실을 분명히 밝혔다”고 언급함.
- 고위관계자는 이날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김 위원장은 북미 대화의 의제로 비핵화도 논의할 수 있다고 말했다”며 “특히, 우리가 주목할 만한 것은 (김 위원장이) 비핵화 목표는 선대의 유훈이며, 선대의 유훈에 변함이 없음을 분명히 밝힌 점”이라고 강조함.
- 김 위원장이 요구한 대화의 조건에 대해서는 “북한에서 특별히 대화에 나오기 위해 우리나라 다른 국가에 요구한, 특정한 것은 없다. 대화 상대로서 진지한 대우를 받고 싶다는 의사를 밝혔다”고 전함.

2018. 3. 7.

#### ■ 트럼프 “남북서 나온 발표 매우 긍정적…북한 아주 좋았다”(연합뉴스)

- 트럼프 대통령은 6일 트위터 계정에 “수년 만에 처음으로 진지한 노력이 모든 관련 당사자들에 의해 펼쳐지고 있다”며 “북한과의 대화에 있어 가능성 있는 진전이 이뤄지고 있다” 밝힘.
- 이어 “이 세계는 주시하며 기다리고 있다”며 “헛된 희망일지도 모른다. 그러나



미국은 어느 방향이 됐든 열심히 갈 준비가 돼 있다”고 덧붙임.

- 이어 트럼프 대통령은 오후 백악관에서 스테판 뢰벤 스웨덴 총리와 정상회담을 하기에 앞서 기자들과 만나 북한의 태도를 긍정적으로 평가하며 “북한은 긍정적으로 행동하고 있는 것 같지만, 우리는 두고 볼 것”이라며 “한국과 북한에서 나온 발표들이 매우 긍정적”이라고 발언함.

#### ■ **北신문 “美위협 대처해 취한 핵억제력 강화조치 정당” 주장(연합뉴스)**

- 노동신문은 7일 ‘조선의 핵보유는 정당하며 시비거리로 될 수 없다’라는 제목의 논평에서 “미국의 핵 위협 공갈 책동에 대처하여 취한 우리의 핵 억제력 강화 조치는 정정당당하다”고 주장함.
- 신문은 “세계 최대의 핵보유국인 미국과 단독으로 맞서 우리의 체도와 민족의 운명을 수호해야 하는 첨예한 대결 국면에서 다른 선택이란 있을 수 없었다”며 “우리는 미국의 핵 위협으로부터 국가의 최고 이익을 수호하기 위하여 정정당당하게 핵무기를 보유하였다”고 주장함.
- 이어 “우리 국가가 수소탄, 대륙간탄도로켓을 보유한 것은 미국과의 실제적인 힘의 균형을 이루기 위한 투쟁에서 거둔 빛나는 승리”라며 “우리를 힘으로 압살하고 나아가서 세계를 제패하려는 미국의 핵 망동을 단독으로 제압하고 세계의 평화와 안전을 수호한 우리 공화국의 공적은 세계의 찬양을 받아야 마땅하다”고 강변함.

#### ■ **미 국무부 “김정남 암살은 북한 정권의 무모한 성격 보여줘”(연합뉴스)**

- 미국 국무부는 6일(현지시간) 북한의 김정남 암살사건과 관련해 “암살을 저지르기 위한 화학무기의 사용을 강하게 규탄한다”고 밝힘.
- 헤더 노어트 국무부 대변인은 성명을 내 “화학무기 사용을 금지하는 보편적인 규범을 공공연히 무시한 것은 북한 정권의 무모한 성격을 더 보여주고, 우리가 북한의 어떠한 대량파괴무기 프로그램도 용납할 수 없다는 점을 강조한다”며 이같이 발언함.
- 이날 성명은 북한 당국이 맹독성 신경작용제 ‘VX’를 사용해 김정남을 살해했다는 미 정부의 공식 조사결과와 그에 따른 추가 제재를 알리기 위해 발표됨.

#### ■ **조선신보 “美, 北과 대화하려면 그릇된 정책 버려야”(연합뉴스)**

- 조선신보는 7일 ‘북남 특사교환, 수뇌 상봉을 향한 착실한 절차’라는 제목의

글에서 “미국이 조선(북한)과의 대화를 이어가려고 한다면 남측 특사대표단의 방북에서 뚜렷이 나타난 대세의 흐름을 똑바로 보고 종래의 그릇된 정책을 버려야 한다”고 주장함.

- 그러면서 “말로써가 아니라 실질적으로 조선반도 평화와 북남관계 개선에 도움이 되는 일을 하는 것이 미국에도 유익하다”라며 “조선의 최고영도자(김정은)와 허심탄회하게 담화를 나눈 특사를 통해 트럼프 행정부의 정책 입안자들이 똑똑히 새겨들어야 할 메시지는 바로 그것”이라고 강조함.
- 신문은 또 “북남 공조와 평화 공세로 오랜 교전국(미국)을 더욱 궁지에 몰아가고 있는 조선의 입장에서는 미국과의 대화에 목말라할 이유가 없다”며 “각국 매체들이 유포해온 견해와 달리 조선의 급속한 핵 무력 강화에 당황망조하여 비공개리에 대화의 문을 계속 두드려온 것은 미국”이라고 주장함.

#### ■ 北통신 “미국, 군사적 도발소동 대가 치를 것” 비난(연합뉴스)

- 중앙통신은 7일 ‘미국은 군사적 도발 소동의 대가를 치르게 될 것이다’라는 제목의 논평에서 “미국이 조선반도(한반도) 정세 완화 분위기를 되돌리기 위한 침략전쟁 준비 책동을 공공연히 다그치고 있다”고 거듭 주장함.
- 이 통신은 ‘그레이 이글’(MQ-1C) 무인공격기의 한반도 배치 추진 등을 거론하면서 “미국이 남조선과의 합동군사연습 재개에 대해 떠벌이는 속에 감행되는 이러한 침략적인 군사적 움직임들은 조선반도 정세를 의도적으로 악화시켜 또 다시 전쟁국면으로 몰아가려는 엄중한 도발 행위”라고 비난함.
- 이어 “미국이야말로 북남대결의 장본인이고 통일의 근본장애물이며 조선반도 평화의 파괴자, 침략전쟁의 원흉임을 스스로 드러낸 것이나 다를 바 없다”고 강변함.
- 그러면서 “미국은 아직도 미국이 조선(북한)을 잘 모른다는 데 있다”며 “미국은 조선에 대한 군사행동이 참혹한 대가를 치르게 될 것이라는 국제사회의 충고에 귀를 기울이는 것이 좋다”고 밝힘.

2018. 3. 9.

#### ■ 톨러슨 “대화에 관한 대화가 첫 단계…협상까지는 먼 길”(연합뉴스)

- 아프리카 순방에 나선 렉스 톨러슨 미국 국무장관은 8일(현지시간) 에티오피아 수도 아디스아바바를 방문한 뒤 기자들에게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언급한대로 남북 간 대화를 통해 잠재적으로 긍정적인 신호들이 북한에서 나오고 있다”고

언급함.

- 이어 “우리는 문재인 대통령과 매우 매우 긴밀한 의사소통을 하고 있다”며 “그들(한국 측)은 우리에게(북한과의) 만남의 내용 등에 대해 지속적으로 알려주고 있으며, 우리 또한 그들에게 조언을 제공하고 있다”고 덧붙임.
- 그는 그러나 “북한과의 직접 대화라는 관점에서 볼 때, 협상까지는 먼 길이 남아 있다”며 “우리는 이에 대해 매우 냉정하고 현실주의적일 필요가 있다”고 밝히면서 “그 첫 번째 단계는 대화를 하는 것, 즉 ‘대화에 관한 대화’를 하는 것일 것”이라며 “왜냐하면 우리는 북한의 대표들과 직접 얼굴을 맞대고 만날 수 있을 때까지는 그(북한이 밝힌) 조건들이 협상에 대해 생각하기 시작하기에 올바른 것인지를 알 수 없기 때문”이라고 밝힘.

#### ■ “북미정상 ‘첫 역사적 만남’ 의사”…주요 외신들 긴급보도(연합뉴스)

- 미국 언론을 비롯한 주요 외신은 8일(현지시간) 정의용 청와대 국가안보실장 등이 한 브리핑 내용을 옮기면서 김정은 북한 노동당 위원장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오는 5월 안에 만날 것이라는 요지의 소식을 일제히 신속하게 보도함.
- 이날 AP통신, AFP통신, 로이터통신, dpa통신, 교도통신, 신화통신 등은 트럼프 대통령이 김정은 위원장을 만나고 싶다는 의사를 밝혔으며, 김 위원장이 핵실험 중단을 약속했다고 긴급 보도함.
- 또 CNN 방송은 “역사적 순간을 지켜보라”며 백악관에서 브리핑 현장을 생중계 하면서 “김정은이 트럼프 대통령을 초청함에 따라 트럼프 대통령이 오는 5월 안에 김정은을 만나겠다고 밝혔다고 정 실장이 발표했다”고 전함.

#### ■ 깜짝 초대한 김정은, 바로 수락한 트럼프…파격 거듭한 북미정상(연합뉴스)

- 김정은 위원장은 문재인 대통령의 대북특별사절대표단을 통해 8일(이하 현지시간) 가능한 한 빨리 트럼프 대통령을 직접 만나고 싶다는 초대장 성격의 친서를 보내고, 비핵화 의지와 핵·미사일 실험 자제 의사를 전달함.
- 트럼프 대통령이 김 위원장의 초청 의사를 전해듣자마자 곧바로 수락을 결정하고 5월을 회담 시한으로 공표함.
- 다만 트럼프 대통령은 회견 직후 트위터를 통해 “큰 진전이 이뤄졌다”고 환영하면서도 “합의에 도달할 때까지 제재는 계속된다”는 등의 글을 올리며 대화 테이블에서의 기선 제압을 시도함.

## 나. 북·중 관계

### ■ 특이사항 없음

## 다. 북·일 관계

2018. 3. 5.

### ■ 일본 아오모리현에 핵실험 감시시설 설치…크세논 수치 측정(연합뉴스)

- 일본원자력연구개발기구는 5일 핵실험을 할 경우 대기 중에 방출되는 방사성물질 관측을 아오모리(靑森)현 무쓰시에서 시작했는데, 교도통신에 따르면 이는 북한에 의한 핵실험 감시 강화를 위한 목적임.
- 앞서 이 기구는 홋카이도(北海道) 호로노베초(幌延町)에서도 지난 1월부터 방사성물질 수치를 측정하고 있는데 기구에 따르면 무쓰시에 설치된 시설은 핵 실험 시 방출되는 크세논을 측정하는 것으로 앞으로 1년간 대기 중 크세논 수치 변동 여부를 체크하게 됨.
- 일본에는 이 두 곳 이외에도 군마(群馬)현 다카사키(高崎)시에도 핵실험에 의해 방출되는 방사성물질 관측 시설이 설치돼 있음.

2018. 3. 6.

### ■ 日외무상, 韓대표단-김정은 면담 겨냥 “北, 미소외교에 필사적”(연합뉴스)

- 고노 다로(河野太郎) 일본 외무상은 6일 김정은 북한 노동당 위원장이 한국의 대북특별사절대표단과 전날 면담한 것과 관련, “필사적으로 북한이 미소외교를 시도하고 있다”고 말했다고 교도통신이 전함.
- 보도에 따르면 고노 외무상은 이날 기자들에게 “경제제재 효과가 나오고 있다”며 이같이 발언함.
- 고노 외무상은 한국 특사단과 김 위원장의 면담 결과에 대해 “한국 측으로부터 제대로 설명을 듣고 싶다”면서, 대북 대응에 대해선 “한미일이 긴밀히 조정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 ■ 日방위상 “北핵정책 변화 확인 안되면 입력약화 안돼”(연합뉴스)

- 오노테라 이쓰노리(小野寺五典) 일본 방위상은 6일 남북 간 정상회담 개최 합의

- 와 관련해 “북한이 핵·미사일 정책을 바꾸는 것이 확인되지 않는 한 압력을 약화할 필요가 없다”고 발언함.
- 그는 이날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김정은 북한 노동당 위원장과 한국 특사단과의 회담 결과에 대한 입장을 묻는 기자들에게 “한국 측의 설명을 들은 뒤에 일본 정부의 대응 방향을 정할 것”이라며 이같이 대답함.
  - 오노데라 방위상은 “이번 회담 결과가 북한의 핵·미사일 개발 포기로 이어질지 앞으로 신중하게 확인해 갈 필요가 있다”고 덧붙임.

### 2018. 3. 7.

#### ■ **야마에 “당분간 대북압력 높이며 각국과 연대해 상황볼 것”(연합뉴스)**

- 야마에 신조(安倍晋三) 일본 총리는 북한이 북미대화 의지를 밝힌 것과 관련, “당분간은 압력을 높이면서 각국과 연대하며 상황을 지켜볼 것”이라는 방침을 측근에게 밝혔다고 교도통신이 7일 전함.
- 보도에 따르면 미국을 방문 중인 가와이 가쓰유키(河井克行) 자민당 총재 외교특보는 야마에 총리가 6일 밤 이같은 방침을 자신에게 전했다고 기자들에게 밝힘.
- 야마에 총리는 “대북 제재가 효과를 올리고 있어 대화의 흐름이 된 것”이라며 해상에서 북한 선박의 ‘환적(換積·화물 바꿔치기)’ 감시를 강화한 것도 효과적이었다는 생각도 밝혔다고 가와이 외교특보는 전함.

## 라. 북·러 관계

### 2018. 3. 5.

#### ■ **“주북 러시아 대사, 최근 승진 최선희 북 외무성 부상 만나”(연합뉴스)**

- 러시아 대사관은 5일 페이스북 계정에 올린 글을 통해 “평양 인민문화궁전에서 마체고라 대사와 최 부상 간 면담이 있었다”고 전하며, 면담에는 지난 3일 평양에 도착한 안톤 홀로프코프 모스크바 에너지·안보센터 소장과 알렉산드르 보론초프 러시아 동방학연구소 한반도·몽골과 과장 등도 자리를 함께했다고 덧붙임.
- 알렉산드르 마체고라 북한 주재 러시아 대사는 면담에서 최 부상이 외무성 북아메리카국 국장에서 차관급인 부상으로 승진한 것을 이고리 모르굴로프 러시아 외무차관 등의 이름으로 축하하면서 “최 부상이 외교 경험과 풍부한 전문 지식을 갖고 있어 업무에서 큰 성과를 거두고 러-북 협력 관계도 더 발전할 수 있을 것”이라고 덕담을 건넸고, 이에 북한 측은 “러시아와 상호 관심사인 대외정치

문제에서 협력을 심화하길 바란다”고 밝힘.

- 양측은 북한 공식 대표단과 선수단의 평창동계올림픽 참가가 긍정적 영향을 미친 한반도 정세에 대해 견해를 교환하고 ““올림픽 화해”가 계속되고, 한반도 긴장 완화를 바라지 않는 자들이 이 같은 화해 분위기를 훼손하지 못하게 되길 바란다”는 기대를 표시했다”고 대사관은 소개함.

### 2018. 3. 6.

#### ■ 러시아 “미국과 비핵화 대화하겠다는 북한 의지 지지”(연합뉴스)

- 러시아는 미국과 비핵화 대화를 하겠다는 북한의 의지를 지지한다고 러시아 의회 고위인사가 6일(현지시간) 밝힘.
- 리아노보스티 통신 등에 따르면 러시아 상원 국·안보위원회 부위원장 예브게니 세레브렌니코프는 이날 문재인 대통령의 대북 특별사절대표단이 김정은 북한 노동당 위원장과의 회담에서 북미 대화 등에 합의했다는 소식과 관련 이 같은 입장을 표명함.
- 세레브렌니코프는 “러시아는 미국과 한반도 비핵화 대화를 하려는 북한의 노력을 지지하며 북한과의 긴밀한 관계를 고려해 그러한 대화의 중재자 역할을 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긴장 완화를 위해선 모든 조치가 중요하다”면서 이같이 밝힘.

### 마. 북·기타국가 관계(국제기구 포함)

#### 2018. 3. 5.

#### ■ “세계교회 지도자들, 北조그런 초청으로 5월초 방북”(연합뉴스)

- ‘88선언 30주년 국제협의회’ 참석차 방한한 크리스 퍼거슨 세계개혁교회커뮤니온(WCRC) 총무는 5일 연합뉴스와의 인터뷰에서 “조그런의 초청으로 대표단을 구성해 5월초 북한을 방문할 예정”이라며 “북측과 함께 한반도 긴장완화 방안을 논의할 것”이라고 밝힘.
- 그는 “오는 5월 9~16일 서울에서 열리는 WCRC 실행위원회 직전 북한을 방문한다는 것은 확정된 상태”라며 방문단을 몇 명으로 구성할지, 방문단에 세계교회협의회(WCC) 관계자들도 포함시킬지 등은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고 언급함.
- 또 한국 교회 대표자들을 포함시킬지에 대해서도 논의가 필요하지만, 해당 사안과 직접 연관된 국가의 대표들은 대표단에 포함시키는 게 WCRC의 관례라고

그는 덧붙임.

2018. 3. 8.

■ **인도, 새 대북 무역규제 조치 발표(연합뉴스)**

- 인도 상공부 대외무역총국이 7일(현지시간)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대북제재 결의에 따라 북한과의 무역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는 조치를 발표했다고 미국의 소리(VOA) 방송이 8일 보도함.
- 대외무역총국은 북한에 수출하거나 북한으로부터 수입이 금지된 품목을 추가한 이번 조치가 즉각 발효된다고 밝힘.
- 인도는 이번 대북제재 조치를 통해 새로운 선박이나 중고 선박의 대북 수출을 금지했고, 또 모든 산업 기계와 수송 장비, 강철 등 금속의 대북 수출도 금지했다고 VOA는 전함.
- 이와 함께 북한산 식품과 농산품의 수입을 금지했으며, 마그네사이트를 포함한 흙과 돌, 나무, 선박 등의 수입도 못 하도록 함.

# Ⅲ 동북아정세

## 1. 한반도정세

### ■ 개요

분류	일자	한국	미국
한미 관계	03.07		미 국무부 “이런날 오리라 생각못해...한국과 다음조치 논의”(연합뉴스)
	03.08	정의용 이어 강경화 15일째 방미 추진...북미대화 조율(연합뉴스)	
		10차 한미방위비분담협정 협의 돌입...첫 회의 호놀룰루서 시작(연합뉴스)	
	03.09		트럼프, 한국산 포함 수입철강에 25% 관세부과 강행(연합뉴스)
분류	일자	한국	중국
한중 관계	03.07		中 “韓특사단 방북 결과 환영...비핵화 추진지지”(연합뉴스)
분류	일자	한국	일본
한일 관계	03.05		일본, 대북특사 파견에 “비핵화·압력강화”만 되풀이(연합뉴스)
	03.07		日 “위안부문제 교육 의무화 안한다”...‘진실교육’ 韓요청 거부(연합뉴스)
	03.08		日, 韓美와 연대해 北에 IAEA 영변 사찰단 수용 요구키로(연합뉴스)



분류	일자	한국	러시아
한러 관계	03.05		'한·러 협의회' 출범... '9·브릿지' 사업 협의채널 가동(연합뉴스)
	03.07		러시아 의회 "남북한 합의 지지·환영...공은 미국에 넘어가"(연합뉴스)

## 2. 주변국정세

### ■ 개요

분류	일자	미국	중국
미중 관계	03.05		중리커창, 美겨냥 "보호무역 반대...합법권의 결연히 수호할 것"(연합뉴스)
		美항모, 43년 만에 베트남 기항...중남중국해 야욕에 공동대응(연합뉴스)	
	03.06		중외교부, 韓특사단-김정은 면담계기로 북미대화 재차 촉구(연합뉴스)
	03.08	왕이 中외교부장 "미중 파트너돼야...무역전쟁은 잘못된 처방"(연합뉴스)	
	03.09		"트럼프측 '무역흑자 3분의1 줄여라' 시진핑 책사에 요구"(연합뉴스)
분류	일자	미국	일본
미일 관계	03.04		일본 외무상 이달 중순 방미... '평창 이후 대북압력 강화' 논의(연합뉴스)
	03.08	오바마, 이달 일본 방문...아베 만나 '北비핵화' 의견교환할 듯(연합뉴스)	

분류	일자	미국	러시아
미러 관계	03.05		푸틴 “미국대선 개입혐의 러시아인 13명 절대 인도하지 않을 것”(연합뉴스)
분류	일자	중국	일본
중일 관계	03.06	中 “다오위다오는 중국땅...중일관계 장애물 만들지말라” 항의(연합뉴스)	
	03.07	중국방부, 日 방위연구소의 ‘중국위협론’에 “멋대로 평가말라”(연합뉴스)	
분류	일자	중국	러시아
중러 관계			특이사항 없음.
분류	일자	일본	러시아
일러 관계			특이사항 없음.

## ■ 주간 동향

### 1. 한반도정세

#### 가. 한·미 관계

2018. 03. 07.

##### ■ 미 국무부 “이런날 오리라 생각못해…한국과 다음조치 논의”(연합뉴스)

- 미국 국무부는 6일(현지시간) 문재인 대통령의 대북 특사단이 워싱턴DC에 오면 “다음으로 우리가 어떤 조치를 취할지를 논의할 것”이라고 밝힘.
- 헤더 노어트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특사단의 방북 기간 남북 정상회담이 합의되고 북한이 ‘비핵화’대화 의지를 표현한 일련의 상황에 대해 “옳은 방향에서 이뤄진 조치라고 확신한다”며 이같이 말함.
- 그는 “많은 사람이 이런 날이 오리라고 생각하지 못했다”고 밝힌 뒤, ‘가능성 있는 진전’을 언급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이날 트윗을 거론하며 “대통령 역시 우리가 동맹들과 함께 다음 조치들에 대해 대화를 나누는, 꽤 좋은 지점에서 있다는 걸 인식하고 있다”고 언급함.

2018. 03. 08.

##### ■ 정의용 이어 강경화 15일께 방미 추진…북미대화 조율(연합뉴스)

- 문재인 대통령의 대북 특사로 평양을 방문해 김정은 북한 노동당 위원장을 만난 정의용 청와대 국가안보실장과 서훈 국가정보원장의 미국 방문에 이어 강경화 외교부 장관이 내주 방미해 북미대화와 관련한 조율을 벌일 것으로 8일 알려짐.
- 북수의 외교 소식통에 따르면 강 장관은 오는 15일께 미국을 방문해 렉스 틸러슨 국무부 장관과 회담하는 방안을 추진 중인 것으로 파악됨. 또 북핵 6자회담 우리 측 수석대표인 이도훈 외교부 한반도평화교섭본부장이 강 장관과 동행하거나 강 장관보다 하루 이틀 앞서 미국을 방문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전함.
- 강 장관은 미국을 북미 직접대화의 테이블로 유도하는 한편 대화에 앞선 한미 공동의 전략을 수립하는 임무를 맡을 것으로 보임. 또 북한이 비핵화를 위한 실질적인 조치를 취하지 않는 한 북한에 대한 제재와 압박은 계속 유지될 것이라는 기초를 확인하고, 앞으로 북미대화가 재개될 경우 양측이 상호 주고받을 구체적 조치들에 대한 의견도 교환할 것으로 예상됨.

■ **10차 한미방위비분담협정 협의 돌입...첫 회의 호놀룰루서 시작(연합뉴스)**

- 2019년부터 적용될 제10차 한미 방위비분담특별협정(SMA) 체결을 위한 양국간 협의가 8일 새벽(현지시간 7일 오전) 미국 하와이 호놀룰루에서 시작됨.
- 이번 회의에 우리 측에서는 장원삼 외교부 방위비분담 협상 대표를 수석대표로 외교부와 국방부 관계관 등이 참석함. 미국 측은 티모시 베츠 국무부 방위비분담 협상 대표를 수석대표로 국무부와 국방부 관계관 등이 나섬.
- 양측은 이날부터 사흘간 진행되는 이번 회의에서 모두 5~6차례 만나 협의할 전망이다. 일단 이번 첫 회의에서는 상호 입장을 공유하고 전체 협의의 틀을 짜는 '탐색전'이 주로 펼쳐질 것으로 보임. 이 과정에서 우리로서는 무엇보다 미국 정부의 증액 요구에 어떻게 대응하느냐가 관건이 될 것으로 보임.

2018. 03. 09.

■ **트럼프, 한국산 포함 수입철강에 25% 관세부과 강행(연합뉴스)**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8일(현지시간) 자국산업 보호를 위해 한국산을 포함한 수입철강과 알루미늄에 대한 고율의 관세부과를 강행함.
-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오후 백악관에서 철강 업계 노동자와 노조 인사들이 참석한 가운데 '미 무역확장법 232조'를 근거로 한 이러한 내용의 철강·알루미늄 규제조치 명령에 서명함. 수입철강에는 25%, 알루미늄에는 10%의 관세를 각각 부과토록 했으며, 캐나다와 멕시코산만 관세 조치 대상국에서 제외됨.
- 당장 우리 정부와 업계의 면제 노력이 불발함에 따라 한국산 철강의 대미 수출이 타격받게 됐고, 트럼프발(發) 글로벌 무역전쟁이 불붙게 될 전망이다.

나. 한·중 관계

2018. 03. 07.

■ **中 “韓특사단 방북 결과 환영...비핵화 추진지지”(연합뉴스)**

- 중국 외교부는 북한이 ‘비핵화 의지’를 표명하고 오는 4월 남북 정상회담 개최가 합의된 데 대해 환영을 표명함.
- 경쌍(耿爽)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6일 저녁 ‘한국 대통령 특사 대표단 방북 결과’에 대한 담화에서 “중국은 한국 대통령 특사 대표단의 방북이 긍정적인 결과를 거둔 점을 주목했다”면서 “중국은 이를 환영한다”고 밝힘.

- 경 대변인은 “한반도의 가까운 이웃으로서 중국은 남북 양측의 관계 개선을 일관되게 지지해오고 있다”면서 “유관국들이 대화와 협상을 통해 안전 문제를 포함한 각자의 합리적인 우려를 해결하고 한반도 비핵화 프로세스의 추진을 지지한다”고 말함.

#### 다. 한·일 관계

2018. 03. 05.

##### ■ 일본, 대북특사 파견에 “비핵화·압력강화”만 되풀이(연합뉴스)

- 일본 정부와 언론은 5일 정의용 청와대 국가안보실장 등 특사단이 북한을 방문한 데 대해 “북한의 비핵화를 끌어내는 것이 중요하다”고 견제하고 나섬.
- 스가 요시히데(菅義偉) 일본 관방장관은 정례 브리핑에서 “과거 대화가 비핵화로 연결되지 않았다는 교훈을 충분히 반영해서 대응해야 한다”고 말함.
- 스가 장관은 “북한이 완전하게 검증가능하고 불가역적인 방법으로 핵·미사일 폐기를 한다고 동의하고, 이를 위해 구체적인 행동을 하도록 촉구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강조함. 이어 “이런 점은 미국과도 완전히 공유하고 있다”며 “한일, 한미일 3개국 간에 확실하게 정보를 공유하면서 대북 문제에 대응하겠다”고 말함.

2018. 03. 07.

##### ■ 日 “위안부문제 교육 의무화 안한다”...‘진실교육’ 韓요청 거부(연합뉴스)

- 일본 정부가 각급 학교에서 위안부 문제에 대해 진실을 교육하라는 한국 정부의 요청을 거부했다고 산케이신문이 7일 전함.
- 신문은 일본 정부가 지난 6일 유엔 인권이사회의 일본에 대한 심사 과정에서 한국이 요구한 위안부 문제 교육에 대해 “위안부 문제를 학습지도요령에서 취급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고 소개함.
- 일본의 학습지도요령은 각급 학교에서 과목별로 교육해야 할 내용에 대해 기술한 것으로, 법적 구속력이 있음. 일본 정부의 이런 발언은 위안부 강제동원 등 일본의 침략전쟁 당시 인권침해 상황에 대한 교육 요구를 거부한 것임.

2018. 03. 08.

■ **日, 韓美와 연대해 北에 IAEA 영변 사찰단 수용 요구키로(연합뉴스)**

- 일본 정부는 북한의 비핵화 의사 표명과 관련해 검증이 중요하며, 이를 위해 영변 핵시설 등에 대한 국제원자력기구(IAEA)의 사찰 수용을 요구하는 쪽으로 한미 양국과 연대할 방침이라고 교도통신이 8일 보도함.
- 앞서 니시무라 야스토시(西村康稔) 관방 부(副)장관은 전날 밤 민영방송인 BS후지에 출연해 북한은 비핵화를 위한 구체적 행동을 보여줄 필요가 있다고 강조하면서 “(북한이) IAEA 사찰에 응하는 등 구체적 프로세스에 돌입하지 않는 한 도저히 협상이 될 수 없다”고 말함.
- 그는 북한이 한국 특사단에 대화가 지속하는 동안 핵실험·미사일 발사를 재개하지 않겠다는 뜻을 밝힌 것에 대해 “핵·미사일을 뒤에서 개발할 수 있다”며 “결국에는 과거의 역사를 반복, 시간벌기에 이용될 것”이라고 주장함.

라. 한·러 관계

2018. 03. 05.

■ **‘한·러 협의회’ 출범…‘9-브릿지’ 사업 협의채널 가동(연합뉴스)**

- 북방경제협력위원회는 5일 러시아 블라디보스토크에서 신(新)북방 정책의 중심인 9-브릿지(Bridge) 협력을 위한 협의채널인 제1차 한·러 협의회를 개최했다고 밝힘.
- 9-브릿지는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해 9월 동방경제포럼에서 제안한 조선, 항만, 북극 항로, 가스, 철도, 전력, 일자리, 농업, 수산 등 9개 분야의 한·러 협력사업임.
- 북방위는 러시아 측과 공동성명서와 양해각서를 통해 9-브릿지 협력사업 지원, 협력사업 점검과 신규사업 발굴을 위한 분과회의 운영, 한·러 협의회 정례화(매년 2회) 등을 합의함. 또 양국 기업과 관계기관이 참여하는 가스·에너지·조선·보건 분야 분과협의회를 개최해 한국 기업의 극동지역 진출과 상호 투자 확대를 위한 협력 방안을 논의함.

2018. 03. 07.

■ **러시아 의회 “남북한 합의 지지 환영…공은 미국에 넘어가”(연합뉴스)**

- 리아노보스티 통신 등에 따르면 러시아 하원 국제문제위원회 위원장 레오니트

슬루츠키는 6일(현지시간) 문재인 대통령의 대북 특별사절대표단이 김정은 북한 노동당 위원장과의 회담에서 북미 대화 등에 합의했다는 소식과 관련 “남북한 합의를 당연히 지지하고 환영해야 한다”면서 “이는 결국에는 한반도 긴장 완화로 이어지는 길”이라고 강조함.

- 그러면서 “중요한 것은 협상 과정에 외부 세력이 개입하지 않고 다양한 대북 도발이 이루어지지 않아야 한다는 것”이라면서 “당사자들에게 합의 기회를 줘야 한다”고 주장함.
- 콘스탄틴 코사체프 러시아 상원 국제문제위원회 위원장은 “북한이 한반도 문제 해결 제안을 붙잡았으며 공은 이제 남북한이 아니라 미국 쪽으로 넘어갔다”면서 “왜냐하면 북한에 대한 안전보장은 사실상 한국이나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이 기구가 대표하는 국제사회 등이 아니라 미국만이 줄 수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함.

## 2. 주변국정세

### 가. 미·중 관계

2018. 03. 05.

#### ■ **중리커창, 美겨냥 “보호무역 반대…합법권의 결연히 수호할 것”(연합뉴스)**

- 리커창(李克強) 중국 총리가 전국인민대표회의(전인대) 정부업무보고에서 미국을 겨냥해 보호무역을 반대한다면서 합법적인 권익을 수호할 것이라고 밝힘.
- 리 총리는 5일 베이징(北京) 인민대회당에서 열린 업무보고를 통해 “무역과 투자 자유화와 편리화를 촉진해야 한다. 중국은 확고부동하게 경제 글로벌화를 추진하고 자유 무역을 수호해야 한다”고 강조함.
- 이어 “유관 측과 함께 다자간 무역 협상의 진척을 촉진해 역내 포괄적 경제 동반자 협상과 관련한 현상을 조기에 타결하고 아시아태평양자유무역구와 동아시아 경제공동체 건설을 가속해야 한다”고 말함.

#### ■ **美항모, 43년 만에 베트남 기항…中남중국해 아육에 공동대응(연합뉴스)**

- .미국 핵추진 항공모함 '칼빈슨' 전단이 5일 베트남 다낭에 입항해 5일간의

일정에 들어감.

- 미 항모전단이 베트남에 기항하는 것은 1975년 베트남전 종전 이후 43년 만에 처음으로 남중국해에서 인공섬을 건설하고 군사 기지화하는 중국을 견제하기 위해 미국과 베트남이 손을 잡은 것이라는 분석이 나옴.
-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은 지난해 5월 응웬 수언 폭 베트남 총리를 만난 자리에서 남중국해 영유권 분쟁에서 중국에 맞서기 위한 군사협력 강화에 의견 일치를 봤고, 이어 같은 해 11월 항모전단의 베트남 기항 계획에 합의함.

2018. 03. 06.

■ **중외교부, 韓특사단-김정은 면담계기로 북미대화 재차 촉구(연합뉴스)**

- 중국 외교부는 6일 김정은 북한 노동당 위원장과 문재인 대통령의 대북특별사절대표단의 면담에 대해 환영을 표명하면서 북미 접촉을 재차 촉구하고 나섬.
- 경창(耿爽)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7일 정례 브리핑에서 이와 관련해 “한국 특사단이 방북해 북한과 의견을 교환하는 것은 좋은 일이라고 생각한다”면서 “우리는 유관 상황과 긍정적인 보도를 주목했다”고 밝힘.
- 경 대변인은 “남북 양측의 접촉이 북미를 포함한 각 국간 접촉으로 확대되고 평창 동계올림픽을 둘러싼 대화가 중단되지 않아야 한다”면서 “남북 관계개선 노력이 한반도 비핵화의 지속적인 평화실현 노력으로 확대되길 바란다”고 말함.

2018. 03. 08.

■ **왕이 中외교부장 “미중 파트너돼야··무역전쟁은 잘못된 처방”(연합뉴스)**

- 왕이(王毅) 중국 외교부장은 8일 베이징(北京)의 양회(兩會·전국인민대표대회와 전국인민정치협상회의) 미디어센터에서 열린 기자회견을 통해 미국에 무역전쟁 회피를 요구하며 협력 강화를 촉구함.
- 왕 부장은 우선 최근 도널드 트럼프 미 행정부가 중국 등을 겨냥한 철강 ‘관세폭탄’ 부과 의지 천명을 겨냥한 듯 “중국과 미국은 세계 평화와 안정, 번영을 수호하는 데 광범위한 공동 이익과 중요한 책임이 있다”고 강조함.
- 그는 “세계 최대 선진국인 미국과 최대 개발도상국인 중국의 협력은 두 나라는 물론 세계에 이익을 줄 것”이라면서 “중미는 경쟁할 수 있지만 경쟁자가 될 필요가 없으며 오히려 파트너가 돼야 한다”고 강조함.



2018. 03. 09.

■ **“트럼프측 ‘무역흑자 3분의1 줄여라’ 시진핑 책사에 요구”(연합뉴스)**

- 미국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중국에 대해 대미(對美) 무역흑자를 3분의 1 가까이 줄이라고 압박했다고 일간 월스트리트저널(WSJ)이 8일(현지시간) 보도함.
- WSJ은 복수의 소식통들을 인용해 “트럼프 행정부가 미국을 방문한 류허(劉鶴) 중국 중앙재경영도소조 관공실 주임에게 대미 무역흑자를 약 1천억 달러(107조 원) 줄일 것을 요구했다”고 전함. 류 주임은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의 경제책사로 통함.
-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트위터를 통해 “중국과 우리의 관계는 매우 좋다. 우리는 그들이 어떤 아이디어를 갖고 돌아올 것인지 고대하고 있다. 우리는 곧 행동해야 한다”라며 구체적인 조치를 압박함.

나. 미·일 관계

2018. 03. 04.

■ **일본 외무상 이달 중순 방미…‘평양 이후 대북압력 강화’ 논의(연합뉴스)**

- 고노 다로(河野太郎) 일본 외무상이 오는 16~18일 미국 워싱턴을 방문해 렉스 테일러슨 국무장관, 제임스 매티스 국무장관과 만난다고 요미우리신문 등 일본 언론이 4일 전함.
- 고노 외무상은 잇따른 회담에서 평창패럴림픽 이후에도 북한의 핵·미사일 개발 포기를 위해 압력을 최대한도로 끌어올려야 한다는 점을 재차 강조할 예정으로 전해짐. 또 패럴림픽 이후로 연기된 한미 연합군사훈련을 예정대로 실시해야 한다는 점도 언급할 것으로 알려짐.
- 아울러 북한이 북미대화 의향을 밝히고 있는 점을 고려해 “비핵화를 전제로 하지 않는 대화에는 응하지 않아야 한다”는 입장도 전달할 것으로 관측됨.

2018. 03. 08.

■ **오바마, 이달 일본 방문…아베 만나 ‘北비핵화’ 의견교환할듯(연합뉴스)**

- 버락 오바마 전 미국 대통령이 이달 24일부터 이틀간 일정으로 일본을 방문함. 그는 방일 기간 아베 신조(安倍晋三) 총리와 회담하고 북한의 비핵화 문제와 다음달 말 예정된 남북 정상회담, 그리고 북미대화 문제 등에 대해 의견을 교환할 것으로 알려짐.
- 일본 정부 대변인인 스가 요시히데(菅義偉) 관방장관은 8일 정례 브리핑에서 “오바마 전 미 대통령이 이달 하순 방일할 예정으로 알고 있다”고 말함.
- 그러나 그는 오바마 전 대통령과 아베 총리와의 회동 여부와 관련해서는 “방일 후 정부 관계자와 만날지는 현 시점에서는 정해지지 않았다”고 말함.

#### 다. 미·러 관계

2018. 03. 05.

##### ■ 푸틴 “미국대선 개입혐의 러시아인 13명 절대 인도하지 않을 것”(연합뉴스)

-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은 미국이 2016년 미국 대선에 개입한 혐의로 기소된 러시아인 13명은 그 누구도 절대 미국에 인도하지 않을 것이라고 다짐함.
- 푸틴 대통령은 4일(현지시간) 미국 NBC 방송과의 인터뷰에서 “그들이 러시아 정부를 대표해 행동한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고 있다. 그들이 구체적으로 무엇을 했는지 나는 모른다”면서 이같이 밝힘.
- 푸틴 대통령은 혐의자들이 미국으로 인도되느냐는 질문에 “절대로, 절대로 그런 일은 없을 것”이라고 강조하고 “러시아도 미국처럼 자국 시민 그 누구도 인도하지 않을 것”이라고 덧붙임.

#### 라. 중·일 관계

2018. 03. 06.

##### ■ 中 “다오위다오는 중국땅·중일관계 장애물 만들지말라” 항의(연합뉴스)

- 일본 정부가 센카쿠(尖閣·중국명 다오위다오<釣魚島>)열도의 영유권 교육을 강화키로 한 데 대해 중국 외교부가 중일관계의 장애물을 만들지 말라며 일본에 항의하고 나섬.
- 경창(耿爽)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6일 정례 브리핑에서 일본 문부과학성이 고교에서 센카쿠 열도에 대한 일본의 영유권 교육을 의무화하는 내용을 담은 고교학습지도요령 개정안을 마련한 것에 대해 강하게 반발함.

- 경 대변인은 “중국은 이에 대해 일본에 엄중한 교섭을 제기했다”고 밝히고, “다오위다오는 오래전부터 중국 고유 영토”라면서 “중국은 영토 주권 수호의 의지가 확고부동하며 일본이 무슨 말을 하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오위다오가 중국에 속한다는 사실을 바꿀 수 없다”고 강조함.

2018. 03. 07.

■ **중국방부, 日 방위연구소의 ‘중국위협론’에 “멋대로 평가말라”(연합뉴스)**

- 중국 국방부가 일본 방위연구소의 ‘중국안전전략보고’를 겨냥해 무책임하고 근거없다고 비난함. 보고서는 중국의 핵 역량이 투명성을 결여하고 있어 큰 문제라고 지적하고 국제사회가 중국의 전략핵의 동향에 대해 더욱 주의를 기울여야한다고 강조하고 있음.
- 7일 중국신문망에 따르면 우첸(吳謙) 국방부 대변인은 전날 기자회견에서 “중국은 변함없이 평화발전의 길을 가고 있으며 호혜공영의 개방전략을 고수하고 있다”면서 “일본의 싱크탱크인 방위연구소의 평가는 무책임하고 근거없는 것”이라고 강조함.
- 우 대변인은 이어 “올해는 중일 양국이 평화우호조약을 체결한 지 40년이 되는 해”라면서 “일본이 객관적이고 이성적으로 중국을 보고 중국과 같은 방향으로 움직이기를 바라며 양국관계 개선 의지가 정책과 행동으로 나타나기를 바란다”고 덧붙임.

마. 중·러 관계

- **특이사항 없음.**

바. 일·러 관계

- **특이사항 없음.**

# IV 북한인권

## ■ 개요

분류	일자	
북한인권 국제동향	3.8	유엔 인권최고대표 “북한 상황 국제형사재판소 회부돼야”(미국의소리)
		미 하원, ‘북한 수용소 폐쇄 촉구’ 결의안 발의...잔혹 행위 고발(미국의소리)
북한인권 내부동향	3.2	북 인사들, 중국 지인에 전화해 노동자 고용요청(자유아시아방송)
	3.4	북, 무역일꾼 파견으로 외화벌이 적극 나서(자유아시아방송)
	3.5	FAO, 올해도 북 ‘식량부족국가’로 재지정(자유아시아방송)
	3.8	北, 세계 여성의날 108주년 기념보고회 개최(연합뉴스)
		북, 3.8국제부녀절 핑계로 물자지원 압박(자유아시아방송)
북한인권 남한동향	3.2	한국 정부, 북 인권침해 가해자 656명(자유아시아방송)
	3.4	北매체, 유엔인권이사회 북한인권 거론 강경화 장관 발언 비난(연합뉴스)
탈북자 이산가족 납북자 국문포로	3.2	영국·캐나다, 탈북민 특수 상황 감안해 추방 자제해야(미국의소리)
	3.6	태국 경찰, 어린이 등 북한주민 8명 체포(자유아시아방송)
대북지원		특이사항 없음

## 1. 북한인권 국제동향

2018. 3. 8.

### ■ 유엔 인권최고대표 “북한 상황 국제형사재판소 회부돼야”(미국의소리)

- 북한의 인권 상황이 국제형사재판소(ICC)에 회부돼야 한다고 유엔인권 최고대표가 말함. 북한의 인권 유린에 대한 책임을 묻기 위한 작업에도 진전이 이루어지고 있다고 밝힘.
- 자이드 라드 알 후세인 유엔 인권최고대표는 북한 상황을 국제형사재판소(ICC)에 회부해야 한다고 밝힘.
- 자이드 최고대표는 7일 스위스 제네바에서 열리고 있는 제37차 유엔 인권이사회에서, 보고되는 북한의 인권 유린의 규모와 중대성을 고려할 때 북한 상황이 국제형사재판소에 회부돼야 한다고 확신하고 있다고 말함.
- 이어 34차 인권이사회에서 채택된 북한인권결의에 따라, 유엔 인권최고대표사무소는 북한의 인권 유린, 특히 반인도 범죄에 해당하는 인권 유린을 기록하는 책임 규명과 처벌 작업에 진전을 이루고 있다고 함. 그러면서 오는 14일 열리는 회의에서 이와 관련한 보고를 하게 될 것이라고 덧붙임.

### ■ 미 하원, ‘북한 수용소 폐쇄 촉구’ 결의안 발의...잔혹 행위 고발(미국의소리)

- 반인도적 범죄 행위가 만연한 북한 수용소의 폐쇄를 촉구하는 결의안이 미 하원에 발의됨. 북한 정부의 반인도 범죄 전담 조사위원회를 설립하고, 북한 수감자들이 만든 상품에 대한 수입을 금지하도록 국제사회에 촉구하는 내용임.
- 지난 5일 마이크 콘웨이 공화당 하원의원이 대표 발의한 이 결의안(H.RES.763)은 북한 수용소의 전면 폐쇄를 촉구하고 있음.
- 국제사회가 북한 정부의 반인도 범죄를 조사하고 해결책을 마련하는 성격의 조사위원회를 설립해야 할 필요성도 강조됨. 또 미국 정부와 국제사회가 북한에서 벌어지는 반인도 범죄에 연루된 개인들을 제재하고, 북한 수용소 수감자들이 만든 상품에 대한 수입을 금지하도록 촉구함.
- 올해 들어 미 의회에 북한 인권 문제를 직접적으로 다룬 안건이 상정된 건 이번이 처음이며 5장으로 구성된 이 결의안에는 북한 수용소에 만연한 각종 인권 유린 행위들이 구체적으로 묘사됨.
- 특히 북한 수용소 중에서도 가장 끔직한 곳은 ‘관리소’라 불리는 정치범수용소 14, 25, 16, 18, 25호로, 약 8만~12만 명을 수감하고 있다고 지적함. 또

1981~2013년 사이 수용소에 수감된 약 50만 명 가운데 40만 명이 수감 중 숨진 것으로 추산된다고 명시함.

- 이어 유엔인권위원회(UNCHR)의 북한 인권 실태 보고서를 인용해 수감자 인원이 점차적으로 줄고 있는데 이는 의도적으로 이뤄진 기아와 강제 노동, 처형, 강간, 강제 낙태 등이 원인이라고 지적함. 결의안은 특히 여성 수감자에 대한 강간과 강제 낙태 등 잔혹 행위를 구체적으로 고발함.

## 2. 북한인권 내부동향

### 2018. 3. 2.

#### ■ 북 인사들, 중국 지인에 전화해 노동자 고용요청(자유아시아방송)

- 무역주재원 등 북한측 인사를 잘 알고 있는 중국 조선족 사업가들은 최근 들어 북한측 지인들로부터 노동자들을 좀 고용해 달라는 부탁전화를 많이 받고 있다고 전함.
- 중국 단둥의 한 조선족 사업가는 “올 연초부터 지금까지 조선 노동자들의 일자리를 좀 주선해 달라는 국제전화를 북한의 지인들로부터 여러 차례 받았다”면서 “중국 당국의 제재로 현재 남아있는 노동자들도 모두 철수해야 하는 상황을 뻔히 알면서도 이런 부탁을 해온다는 사실이 황당하다”고 자유아시아방송(RFA)에 밝힘.
- 액세서리 임가공을 북한에 주문하고 있는 한 대북 사업가도 “중국내 사업장에서 조선 노동자를 좀 써달라는 부탁 전화를 여러 번 받았다”면서 “중국정부가 조선 노동자의 신규 고용을 금지한 사실을 잘 알면서도 그런 부탁을 해오는 걸 보면 조선의 외화사정이 매우 급한 것 같다”고 언급함.
- 소식통은 “조선 노동자의 신규 고용이 불가능 하지만 조선측 인사들이 요청하는 것은 당국의 눈을 피해 외딴곳에서 조용하게 일을 할 수 있는 곳을 찾아 달라는 것”이라며 “다시 말하면 조선노동자들의 불법적인 소규모 일자리를 주선해달라는 의미”라고 설명함.

### 2018. 3. 4.

#### ■ 북, 무역일꾼 파견으로 외화벌이 적극 나서(자유아시아방송)

- 북한이 최근 무역기관 간부(무역일꾼)들을 대거 외국에 내보내고 있는 것으로

- 알려짐. 작년 말 소환되었던 중국 내 주재원들도 대부분 새로 연간 무역과제를 받아 다시 중국으로 출국하고 있다고 현지소식통들은 전함.
- 북한의 외화난이 심각하다는 증언이 속속 전해지고 있음. 무역부문 일꾼들이 서둘러 외국으로 다시 출국하고 있다고 현지소식통들은 밝힘.
  - 1일 평양시의 한 소식통은 “최근 평양에 본부를 둔 국영무역회사들에 연간 무역과제가 하달되었다”면서 “외화자금 확보를 위해 무역회사들이 중국과 러시아, 동남아와 아프리카등지에 무역일꾼들을 서둘러 파견하고 있다”고 자유아시아방송에 언급함.
  - 소식통은 “작년말까지 국제사회의 대북제재로 여러 나라에 진출했던 무역회사들이 상당수 철수했다”면서 “무역일꾼들의 철수로 당자금을 맡고있는 대성총국과 대흥무역, 칠성무역 등 외화벌이회사들이 상당한 타격을 입었다”고 지적함.

2018. 3. 5.

■ **FAO, 올해도 북 ‘식량부족국가’로 재지정(자유아시아방송)**

- 유엔은 북한을 외부지원이 필요한 식량부족 국가로 재지정함. 지난해 가뭄으로 쌀 작황이 전년에 비해 부진했고 농산물 생산이 줄면서 경제 상황도 나빠졌다고 평가함.
- 유엔 산하 식량농업기구(FAO)는 5일 발표한 ‘작황 전망과 식량 상황’ 2018년 1분기 보고서에서 북한을 외부 지원이 필요한 37개 식량부족 국가군에 포함시킴.
- 보고서는 지난해 봄 북한의 곡창지대에 비가 내리지 않아 가뭄이 심했다면서 모내기에 나쁜 영향을 줬고 쌀농사가 전년보다 못했다고 전함.
- 평년 수준이었던 2016년 보다 쌀 수확이 줄었기 때문에 북한 주민들은 올해도 건강을 유지하기에 부족한 음식 섭취를 하는 상황이 예측된다고 유엔의 식량기구가 평가함.
- 보고서는 북한 당국이 수입하거나 인도주의 국제지원으로 메워야 할 식량 부족량이 약 46만 톤에 이른다고 지적함.

2018. 3. 8.

■ **北, 세계 여성의날 108주년 기념보고회 개최(연합뉴스)**

- 북한은 8일 세계 여성의 날을 맞아 평양 인민문화궁전에서 ‘3·8 국제부녀절’

108주년 기념 중앙보고회를 열었음.

- 북한 조선중앙방송 등에 따르면 이날 보고회에는 양형섭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부위원장, 최취 노동당 중앙위원회 부위원장, 김수길 평양시당 위원장, 전광호 내각 부총리, 장춘실 조선사회주의여성동맹 중앙위원회 위원장 등이 참석함.
- 또 해외동포 여성들과 평양 주재 외교·국제기구 대표부 여성들 및 외국 손님들도 초대됐다고 북한 매체는 전함.
- 최취 당 부위원장은 보고를 통해 “오늘 주체의 조선 여성운동은 경애하는 최고 영도자 김정은 동지를 높이 모시어 자기 발전의 최전성기를 펼쳐나가고 있다”며 “우리나라 여성운동은 연대와 세기를 이어 혁명적이고 전투적인 여성운동으로 자랑찬 승리의 한길만을 걸어왔으며 세계 진보적 여성운동의 본보기로 자랑 떨치고 있다”고 주장함.

#### ■ 북, 3.8국제부녀절 핑계로 물자지원 압박(자유아시아방송)

- 함경북도의 한 소식통은 6일 “3.8국제부녀절에 맞춰 여성중앙위원회에서 각 도의 각급 여맹조직들에 축하문을 전달했다”면서 “축하문에는 여성들의 지위와 역할을 강조하면서 당의 (핵·경제)병진노선 관철에 한사람같이 떨쳐나서야 한다고 주장했다”고 언급함.
- 소식통은 또 “호소문은 지난 날 전쟁의 참화와 적기의 맹폭격속에서도 전시생산을 보장했던 여성들의 기백과 정신으로 증산투쟁, 창조투쟁, 생산돌격전을 과감히 벌릴데 대해 주문했다”면서 “국제적인 제재의 와중에서 여성들의 책임과 역할을 강조하는 내용”이라고 지적함.
- 소식통은 이어 “행사에 참가한 일부 여성들은 3.8국제부녀절이 근로여성의 명절인데 공식 직업도 없는 우리가 왜 각종 국가건설을 지원해야 되냐며 의문을 나타냈다”면서 “대부분 장마당장사를 통해 생계를 책임진 여성들이어서 중앙의 주문에 반발할 수밖에 없다”고 덧붙임.
- 소식통은 “여맹원들은 원산갈마해안관광지구 건설과 삼지연군꾸리기, 단천발전 소건설을 비롯한 중요대상건설에 애국의 한마음으로 지원하라는 지시에 대해 가장 큰 불만을 나타냈다”면서 “지금껏 다 거뒀는데 뭘 더 바치라고 요란하게 떠드는 것이냐며 불평했다”고 말함.



### 3. 북한인권 남한동향

2018. 3. 2.

#### ■ 한국 정부, 북 인권침해 가해자 656명(자유아시아방송)

- 한국 법무부 산하의 북한인권기록보존소가 지금까지 656건의 ‘북한 인권 가해자 카드’를 만들. 북한 주민들의 인권을 침해한 가해자들의 정보를 문서로 기록해 놓은 것인데 이름과 소속, 직위 등 자세한 신상 정보도 명시돼 있음.
- 한국 법무부 산하의 북한인권기록보존소가 지난해 통일부 북한인권기록센터로부터 받은 총 428건의 북한인권 자료 가운데 410건에 대한 분석을 완료했다고 밝힘. 보존소는 이 같은 분석 내용을 바탕으로 ‘북한 인권 침해 가해자’ 656명의 신상 정보를 담은 ‘가해자 카드’를 만들.
- 최기식 북한인권기록보존소장은 2일 ‘한반도 인권과 통일을 위한 변호사 모임(한변)’이 주최한 토론회에 참석해 “가해자 656명 가운데 182명은 이름과 소속, 직위 등 상세한 정보가 파악됐다”고 밝힘 나머지 가해자 474명은 생김새와 체형, 성별, 키 등 일부 정보만 파악된 상태임. 최 소장은 “이 같은 자료들은 통일 후 북한 주민들의 인권을 침해한 가해자들의 처벌 등에 활용될 것”이라고 강조함.

2018. 3. 4.

#### ■ 北매체, 유엔인권이사회 북한인권 거론 강경화 장관 발언 비난(연합뉴스)

- 북한 선전 매체들은 강경화 외교부 장관이 스위스 제네바에서 열린 유엔인권이사회(UNHRC) 회의에 참석해 북한의 인권 문제를 거론한 것을 비난함.
- 북한의 대남선전매체 ‘우리민족끼리’는 지난 3일 ‘아직도 거덜 난 인권 북통을 두드려대는가’라는 제목의 논평에서 “얼마 전 남조선의 외교 당국자가 스위스 제네바에서 열린 제37차 유엔인권이사회 회의에 참가하여 또다시 우리의 인권 문제를 걸고 들었다”며 “현 북남관계 개선 분위기에 재를 뿌리고 거덜이 난 적대세력들의 반공화국 인권 모략책동을 부추기는 폰수 없는 대결 망동이 아닐 수 없다”고 비난함.
- 이어 “남조선 외교 당국자가 유엔회의 마당에서 ‘평창의 정신’에 이른바 북 인권 문제를 한사코 끌어다 붙인 것은 동족의 성의 있는 노력으로 마련된 현 북남관계 개선 분위기에 재를 뿌리는 반민족적 행위”라고 주장함.

#### 4. 탈북자 및 이산가족·납북자·국군포로

2018. 3. 2.

##### ■ 영국·캐나다, 탈북민 특수 상황 감안해 추방 자제해야(미국의소리)

- 한국에 정착했던 탈북자들이 영국이나 캐나다 등에서 난민으로 인정받기가 점점 더 어려워지고 있음. 탈북자들에게는 한국이라는 비교적 안전한 정착지가 있기 때문이라는 게 이들을 난민으로 인정하지 않으려는 나라들의 설명이지만, 탈북자와 전문가들은 이들 국가들이 탈북자들의 특수한 상황을 감안해야 한다고 함.
- 영국에 본부를 둔 탈북자 단체인 '국제탈북민연대'의 김주일 사무총장은 1일 VOA와의 전화통화에서, 최근 영국에서 난민으로 인정받는 탈북자가 거의 없다고 말함.
- 김 사무총장은 영국 정부가 2009년부터 망명을 신청한 탈북자들에 대한 심사를 강화하면서, 한국에 입국한 뒤 한국 국적을 취득한 탈북자들이 영국에서 난민으로 인정받기가 어려워졌다고 말함.
- 실제로 영국 내무부는 지난 2016년 발표한 보고서에서, 모든 북한 주민들이 한국 국적을 갖고 있었던 점을 지적하면서, 북한에서의 박해 우려 때문에 망명을 신청할 경우 거부될 가능성이 높다고 밝힘.
- 탈북자의 망명 신청을 거부해도 신청자가 박해가 기다리는 나라로 돌아가는 결과로 이어지는 않는다는 것임. 또한 신청자가 다른 나라 국적, 즉 한국 국적을 얻어 보호를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할 수 있는 합리적 근거가 있다고 밝힘.

2018. 3. 6.

##### ■ 태국 경찰, 어린이 등 북한주민 8명 체포(자유아시아방송)

- 태국, 즉 타이 경찰이 5일 태국 북부 부엡칸 지역에서 어린이를 포함해 북한주민 8명을 발견하고 이들을 모두 경찰서로 이송했다고 영국 BBC 방송이 6일 보도함.
- 체포된 북한주민들은 여성 어른 5명과 세살에서 여섯살 사이의 어린이 3명으로 당시 고속도로를 따라 걷다가 태국 경찰에 발견되었다고 방송은 전함.
- 이들은 태국어를 못해 통역을 통해 확인한 결과 모두 북한에서 중국으로 탈북했고 중국에서 차를 타고 라오스까지 이동한 후 배를 타고 메콩강을 건너 태국으로 들어왔다고 방송은 전함.
- 이들은 태국에서 경찰에 붙잡혀 태국주재 한국대사관으로 보내진 후 한국으로 추방되기를 희망했다고 방송은 밝힘.

- 방송은 중국으로 탈북한 후 라오스를 거쳐 태국 북부지역으로 불법 입국한 북한주민들이 올해초부터 지금까지 30명이었고 지난 2월에만 20명의 북한주민들이 이런 식으로 태국에 들어왔다고 덧붙임.

## 5. 대북지원

- 특이사항 없음